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

Consumer Insight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Travel Report `19)

기 관	컨슈머인사이트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 의	김민화 연구위원/Ph.D	연 락 처	02) 6004-7643
배 포 일	'20년 4월 9일 (목) 배포	매 수	자료 총 2매

지난 주 “봄나들이 다녀왔다” 22%

- 당일여행 경험 비율 3월초 최저치 찍고 2주만에 반등
- 코로나19 확진자 줄고 날씨 따뜻해지자 경각심 풀려
- 사회적 거리두기 의식해 체험보다 자연 감상 위주로
- 40대이상 중장년층 여성이 가장 열심히 '집콕' 생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당일여행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 1주일 내 당일여행을 다녀왔다'는 응답이 22%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올해 1월 수준을 회복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집콕'이 장기화되면서 짧은 나들이로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다. 사람이 밀집된 실내시설이나 식당 방문, 친지/친구와의 만남은 줄어든 대신 봄꽃 구경 등 자연과 휴식을 즐기는 가벼운 활동으로 변한 것이 특징이다.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주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당일여행 경험을 추적했다. 설문조사 참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7일간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숙박하지 않고 ▲나들이를 겸한 식사와 쇼핑을 포괄한 활동을 당일여행으로 간주하고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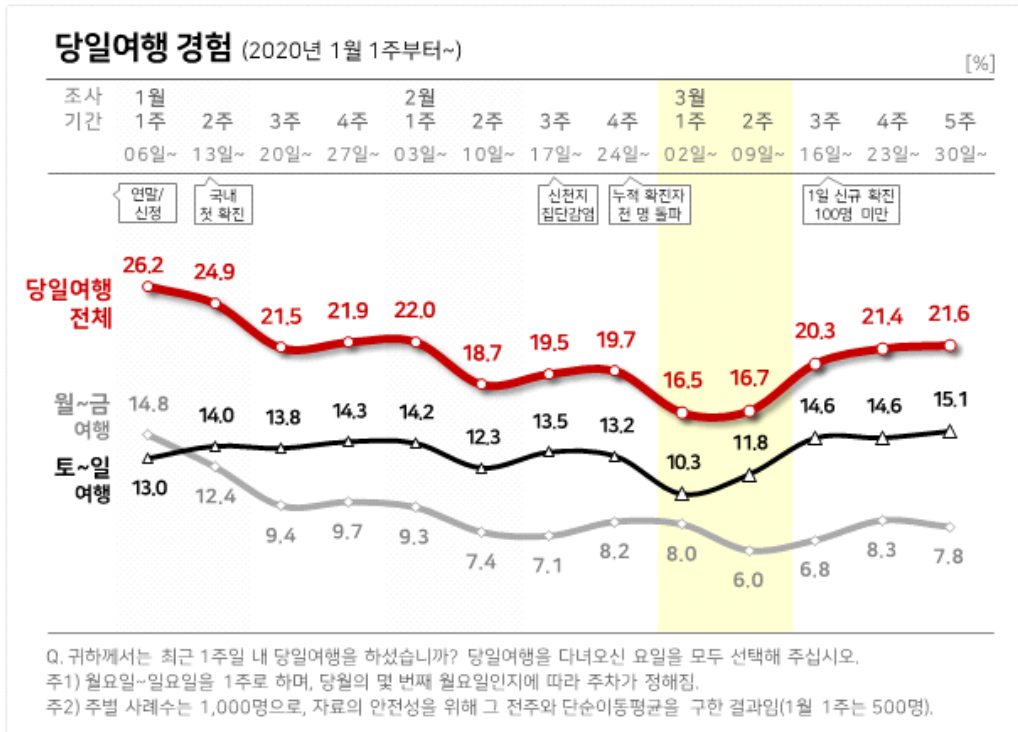
■ 주별 당일여행 경험률 3월 1주 바닥찍고 2주만에 상승해

주간 당일여행 경험률을 보면 ▲1월 1주에는 연말·연시, 신정 연휴로 26.2%에 달했다[그림1]. 그 후 21~22% 선을 유지했으나, 1월 말 국내 코로나19 2·3차 감염 및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2월 2주에는 전주 대비 3.3%p 포인트(p) 감소한 18.7%를 기록했다. 이후 소폭 늘다가 대구·경북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회 집단감염 발생 후 ▲3월 1주 16.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시기 1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으로 급속 증가해 외출을 극도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주말여행도 최저수준(10.3%)을 기록했다. ▲3월 2주(16.7%)까지 '집콕'은 이어졌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3월 3주 20.3%(+3.6%p) ▲4주 21.4%(+1.1%p)로 확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억눌린 외부활동 욕구, 따뜻한 날씨, 1일 100명 미만으로 잦아든 신규 확진자 수 등의 영향으로 경각심도 풀린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거리두기 모범생은 40대 이상 여성

외출이 가장 적었던 3월 1, 2째주 남성보다는 여성, 어린 자녀가 있는 30-40대,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활동을 더욱 자제했다. 반면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은 생활에 변화가 없었고 따뜻해진 봄바람에 가장 먼저 외출을 재개한 층은 30대 여성이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층은 40대 이상 장년층 여성으로 여전히 3월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1] 당일여행 경험 보유율 (요일 복수응답)



■ 자연풍경 감상 늘고 지인만남·식도락 활동 줄어

3월 중 당일여행에서 한 활동은 ▲자연풍경 감상이 42.7%로 가장 높았고 ▲식도락 28.4% ▲도시경관 감상 12.1% ▲휴식 ▲쇼핑이 각각 11.3% 순이었다. ▲체험/놀이시설(7.2%) ▲문화/스포츠 관람(4.6%) ▲축제/행사 참여(3.7%) 등 문화/레저 시설 활용은 높지 않았다.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기피하고 프로스포츠 리그, 축제 등의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과 3월의 여행활동을 비교하면 야외활동을 선호하는 동시에 비일상접촉을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모습을 보인다. 전월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난 활동은 자연풍경 감상(+8.6p)이며, 도시경관 감상(+3.2%p) 역시 늘었다. 반면, 지인 만남(-6.1%p), 식도락(-4.6%p)은 크게 줄어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매식을 꺼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동 수도 2월 평균 1.63개에서 3월 평균 1.52개로 줄었다.

억눌렀던 여가·여행 욕구 표출로 거주지를 벗어나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 비일상적 접촉은 최소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야외라도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는 전염 위험성이 커지기 마련이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늘기 쉽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며, 무분별한 외부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 2018-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johw@consumerinsight.kr	02)6004-7631